

공개 1호 누드모델 하영은

‘창작의 도움단기’ 역할, 누드모델도 아티스트다

서정민 기자/중앙 컬러&라이프스타일랩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신 거울 앞에 선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30년 넘게 해온 나만의 루틴이다. 거울 속에는 어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멀건 몸뚱이 하나가 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의 지난 세월을 지켜봐 준, 마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활동한 국내 첫 누드 모델이자 ‘한국누드모델협회’ 설립자인 하영은(54)씨가 최근 출간한 ‘나는 누드모델입니다’의 첫 단락이다.

“밤사이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살이 얼마나 빠졌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혹시 몸에 상처라도 생기진 않았는지 작은 흔적이라도 찾는 거죠. 누군가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기 위해선 저도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사랑해야 하니까요.”



들을 현혹시킨다’는 인식을 깨고 싶어하였다.

“그래도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협회 출범하고 1년 후 어느 밤에 안기부

직원들이라며 남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체불명의 단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후 꼬박 3개월 동안 국가의 감시를 받았죠.”(웃음)

요즘도 하씨는 회원의 ‘성추행 고소’ 건으로 법원을 오간다. 누드모델과 사진·회화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 중에 ‘모델의 몸을 만지지 말 것’이 있다. 일상에서도 원치 않는 불쾌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몸을 바라볼 때 경솔해지기 쉬워요. ‘예쁘다’ ‘육덕지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모델들은 상처를 받죠. 그런 무언의 폭력과 성추행에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요.”

하씨의 에세이를 읽으며 놀란 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누드모델들이 정말 ‘열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캔버스 앞에 조각상처럼 서 있는 모습만 상상했다면 오산이다.

“순수예술뿐 아니라 패션·의료·영상·게임 등 신체와 알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국내 유명 의화사적에 실린 인체 지도는 우리 협회 소속 남자 모델의 몸을 그대로 그려 넣은 거죠. 2002년부터 방영 중인 KBS 다큐멘터리 ‘생로병사의 비밀’ 도입부 인서트 영상 속 몸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간호학과 학생들의 주사 실습에 동원되는 둔부 모양의 실리콘 모형도 제 엉덩이를 모델로 제작했구요. 모두 수수하는 엄마와 아기의 사진 속 가슴을 촬영한 적도 있죠.”

키 165?, 몸무게 45?. ‘보통의 한국인 여성’이라 할 수 있는 하씨의 몸은 이처럼 의료용 인체모형 제작에 주요하게 쓰였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술 발전에 하영은이 큰 공을 세웠다”는 우스갯소리를 할까.

현재 누드모델협회 소속 회원 수는 500여 명. 이 중 100명이 전문 모델이고, 그 외는 주

중에는 직장인·주부로, 주말에는 누드모델로 활동하는 ‘N잡러’(본업뿐 아니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가진 사람들)’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본들도 있지만 자신감을 갖기 위해, 색다른 경험을 위해 누드모델에 도전하는 회원도 많아요. 사진이 아닌 크로키?드로잉 작업용 누드모델이 되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거든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는 노숙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어려움을 가졌다는 목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성취의 경험을 얻고 싶다는 전직 중소기업 CEO,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았다는 중년 부인이 한국누드모델협회 문을 두드렸고, 지금도 누드모델로 당당하게 활약하고 있다.

“팬티까지 벗은 알몸으로 근육과 뼈를 움직여 감정을 동작으로 전달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만큼 성공하면 당당함·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30년 간 국내 최장수 모델로 활동한 누드모델이자 한국누드모델협회 설립자인 하영은씨의 실제 뒷모습 누드와 얼굴을 촬영해 합성했다.

전민규 기자

일이기도 해요. 게임이나 디지털 영상에서도 우리를 찾으니까 요즘은 인생을 재밌게 살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원 500명, 의료·패션·게임까지 ‘열일’

하씨의 에세이집 표지에는 ‘날 것 그대로 내 몸을 마주한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몸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 성격, 욕망, 습관…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까지 고스란히 말이죠. 그만큼 몸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죠.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스스로 얼마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흔적이 드러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속에서 살이 처지고, 주름이 패인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씨도 처음엔 한없이 우울했다고 한다.

“나이의 흔적을 가리기 위한 포즈를 열심히 연구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고 있는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받아들이자. 이게 나잖아. 늙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동작과 감정 연출을 연습하자. 젊고 예쁜 몸으로 연

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내 몸이 가진 장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맘을 고쳐 먹고 나서부터는 행복해졌어요.”

하씨가 ‘내 몸을 마주하라’ 한 것도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다. 축 늘어진 뺏살, 휘어 있는 척추, 속 빠져나온 거북목. 지금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좀 더 건강한 몸을 위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씨는 그렇게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가꿔온 몸으로 ‘창작의 도움단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의 직업이 좋다고 했다.

“작가의 손끝에서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건 아니예요. 작가의 생각을 읽고 그 감정을 연기한 누드모델도 아티스트예요.”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크로키 시간에 그린 여러 누드모델들의 동작.

